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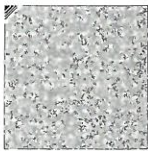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93호

2022년 5월 8일(다해)

부활 제4주일
(성소 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발행인 정순택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송 | 시편 33(32),5-6 참조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3,14.43-52

화답송 | 시편 100(99),1-2.3.5(◎ 3c 참조)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이,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제2독서 | 묵시 7,9.14L-17

복음환호송 | 요한 10,1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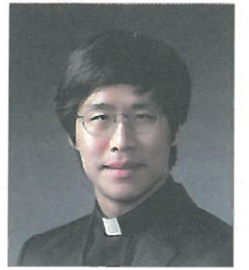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음 | 요한 10,27-30

영성체송 |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양우준 레오 신부 | 성소국 차장

우리 모두의 착한 목자이신 주님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 떼’라고 하면, 양들이 싱싱하게 자라난 푸른 풀들을 한가로이 뜯고 있으며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는 목자가 있는 구도, 즉 목가적 풍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에는 비가 적게 내리는 광야에서 양 떼를 치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성소 주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긴장감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데 마실 물도, 푸른 풀도 별로 없고 이따금 강도마저 등장하는 열악한 상황을 연상하는 것 말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착한 목자’를 떠난다는 것은 양 떼들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착한 목자를 떠난다면 얼마나 큰 슬픔을 마주하게 되는가.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하며, 예수님처럼 양 떼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착한 목자들을 교회에 많이 보내주십시오.’라는 지향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이 그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언제나 교회의 목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청중 전체, 더 나아가 ‘그리스도 신앙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요. 따라서 초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똑같이 인간적 한계를 공유하는 성직자 등의 ‘착한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언제나 우리의 눈길이 가 있어야 하겠지요.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이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착한 목자이시다.’라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 이야말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분이 라는 것, 그분께서는 우리가 약해서 비틀거릴 때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세워 주시며,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 나서시며, 그 무엇도 당신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요한 10,28 참조) 구원하러 오시는 분임을 굳게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거룩한 초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당연히 요청되는 사실이지요. 어떤 직분에 있든지 간에, 먼저 자신이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착한 양’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주님을 우리의 ‘스승’이요 ‘착한 목자’로 모시고 늘 그분으로부터 겸손하게 배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소 주일인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부르심’을 깊이 성찰하고 이를 의식하며 살도록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초대는 결코 한정되어본 적 없으며, 오늘을 걷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 모두’에게 향하고 있음을 간직하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요한 10,28)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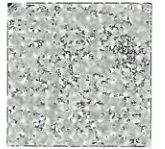
솔원성지 대성전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요한 10,28)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가슴에 두 손을 모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부활의 기쁜 길을 걸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제들과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김문숙 요셉피나 | 가톨릭사진가회





홍진호 제노 | 첼리스트

엄마의 기도 일기

그레고리안 찬트, 바흐의 칸타타, 어린이 성가대, 무반주 모테트를 비롯해 양희은, 이선희, 이상은, 조용필 등 어린 시절 집 스피커에서는 설 새 없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음악을 쳐놓고 청소하시는 시간이 시부모님을 모시며 바깥일과 집안일을 병행해야 했던 고단한 어머니의 일상에 몇 안 되는 나뉠의 힐링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직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의 곁을 졸졸 쫓아다니며 옆에서 크레파스로 그림도 그리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따위를 집으며 한시도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그날도 역시 집안을 가득 채웠던 음악은 그저 생활의 일부일 만큼 익숙해져, 별다른 감흥 없이 가끔은 익숙해진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에 울려 퍼졌던 낯선 야수의 음악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첼로 연주였습니다. 방바닥을 통째로 흔들며 가슴속을 무언가로 박박 긁어 대는 듯한 강렬한 소리는 고작 열한 살이었던 어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와 동시에 저런 소리를 내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 저 소리를 내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기게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식음을 전폐하며 첼로를 배우게 해달라고 난데없이 생떼를 부리는 철부지 아들에게 풍족하지 않았던 경제적 상황과 훌륭한 클래식 악기 연주자로 성장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고려해 부모님께서서는 취미로 한다는 전제하에 마침내 첼로 수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처음으로 악기를 손에 쥐고 활을 그었을 때 고스란히 가슴에

전달되던 첼로의 울림은 방바닥까지 흔들며 포효하던 야수의 울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첼로와 급속도로 사랑에 빠진 저는 음악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마냥 순탄치는 않았지만, 이제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떼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첼로 연습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마다 다른 방에서 묵주 기도를 하시던 어머니는 종종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기도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 일기에는 늘 나를 아끼고 배려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첼로에 욕심이 생기면서 남보다 더 잘해야 하고 빨리 성장해서 친구들의 악기 실력을 따라잡아야겠다는 욕심만 커지던 저를 보며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런 욕심을 아직 완전히 버리지 못했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차곡차곡 쌓여가는 어머니의 기도 일기처럼 저 또한 조금씩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오늘도 또 한 번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한컷 묵상



그들은 나를 따르라

류상애 아녜스 수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믿음

신앙

사랑

희망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16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 참된 그리스도인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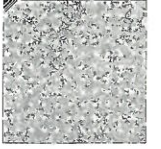
바로 사도는 코린토 1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서술한 후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3,13) 하느님을 향한 덕행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신앙애, 향주덕 혹은 향주삼덕(向主三德)이라 합니다. 이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입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희망함을 의미하고, 믿는 사람은 하느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 2,26 참조)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이 약속된다고 가르치는데, 구원받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함께 계시기에 구원을 위해서 신앙과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며(마르 16,16; 요한 3,5 참조),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톨릭교회를 필요한 것으로 세우신 사실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교회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거나 그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 14항) 또한 교회에 소속되더라도 사랑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마음이 아니라 몸만 남아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톨릭교회는 가르칩니다.

가톨릭 신자는 매일 자기 가슴에 성호경, 즉 십자가를 긁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으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지나는 삶의 무게이자 각 개인에게 주

어진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향주삼덕은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입니다. 믿음이란 하느님을 알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희망이란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을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은총입니다. 사랑이란 하느님 사랑에 머물며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은총입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을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신을 참고 견디는 것이 희망이며, 하느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성경과 교회를 통해 계시해주신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복 직관’(至福直觀, visio beatifica), 즉 하느님을 직접 보는 것,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앙과 세례와 교회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렵듯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



자신의 자리를 망각한 하가르



허영엽 마티아 신부 |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가르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라의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자, 이집트 노예인 하가르를 남편의 침실로 들여보내 후사를 잇게 하였습니다. 사라가 생각 하기에 하인들 중에서 뽑은 하가르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가르가 심성이 착하고 순종적이라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기 말을 잘 들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가르도 처음에는 주인 사라의 환대가 눈물 나게 고마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라가 자신을 선택해 주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자 전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신분 상승을 하게 돼 하가르 본인도 얼떨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왜 그럴까요? 시간이 흐르자 하가르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가문에 아들을 낳아 주게 되면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야. 사실 그동안 나는 너무도 당하면서 살았어.” 시간이 흐르면서 하가르의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불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가르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행동을 하여, 결국 총애 받던 여주인 사라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처음 하가르와 사라의 서로에게 아주 좋은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서로 나쁜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대상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가르는 여주인 사라의 자리를 넘보며 금지된 경계선을 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선을 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결과는 뻔합니다. 갈등과 싸움만이 남습니다. 안하무인(眼下無人)한 하가르

의 태도는 곧 화를 불렀습니다. 멸시당한 사라의 아브라함과 담판을 벌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마음이 아팠지만, 사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나는 당신 뜻을 따르겠소.” 하가르의 교만한 행동은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하가르는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자기 고향인 이집트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사라에 대한 원망,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에 휩싸여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채로 광야를 헤매다 지쳐서 샘물 곁에 쓰러집니다. 그때 하가르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나 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가르는 그제야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가르는 자신의 자리가 여종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없이 교만하게 행동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사라의 학대 때문이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방어적으로 생각해야 자신의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천사가 “다시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곳이 네가 있을 자리다.”라고 말해 그녀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들나귀와 같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자리가 있고 다른 이와 맺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하여 대상관계를 혼동할 때, 인간은 고통과 시련, 멸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올바른 자리에 늘 서 있습니까?(창세기 16장, 21장, 25장을 읽어보세요.)



비올레타 파라(1917~1967, 칠레) | 사진 출처: 위키백과

음악칼럼

웃음과 눈물을 준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 “삶에 대한 감사 (Gracias a la Vida)”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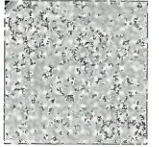
‘월드뮤직’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지만, 우리 귀에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던 1990년대 음악 애호가와 산업 관계자들은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양 약간의 흥분과 함께 애정 어린 시선을 쏟아부었습니다. 월드뮤직이란 아시디스피 영미권, 서유럽권 주류 음악이 아닌, 세계 각 지역의 민속 음악에 기반한 다소 대중적인 음악을 말합니다. 당시 추세를 반영해 저도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월드뮤직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그 특집의 제목을 ‘노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붙였었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된 데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노래, 저항의 노래들 영향이 컸죠. 그 노래들을 탄생시킨 라틴 아메리카 민중의 삶이란 대체로 부패한 정권하에서 겪는 불평등과 가난, 군부 독재 치하에서 행해지는 자유와 권리의 박탈,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음악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노래’라는 무기를 들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이 사회운동은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ón, 새로운 노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1960년대 칠레를 기점으로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고, 사회참여적인 노래의 장르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회 상황을 과거 우리나라도 겪었기 때문일까요? 이 노래들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누에바 칸시온의 많은 곡 중에 가장 사랑받는 것은 <삶에 대한 감사(Gracias a la Vida)>일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는 저항적, 투쟁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인생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칠레 누에바 칸시온의 어머니’라 불리는 비

올레타 파라(Violeta Parra, 1917~1967, 칠레)가 1966년 자신의 마지막 음반에 수록했는데, 1971년 아르헨티나 민중의 희망이자 양심으로 지칭되는 메르세데스 소사(Mercedes Sosa, 1935~2009, 아르헨티나)가 부름으로써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퍼졌습니다. 소사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 시절,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힘 있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인간에 넘치는 노래를 불러 민중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던 국민적 가수입니다. 그녀는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얻을 만큼 노래로 민중을 대변했죠. 이 노래는 소사 이후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가수는 물론이고 미국의 포크 가수 존 바에즈(Joan Baez)가 부르면서 세계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빛나는 두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생각하고 말하는 소리와 문자, 행진할 수 있는 다리... 그 많은 것을 내게 준 삶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을 준 삶에 감사합니다. 웃음과 눈물로 내 노래는 만들어졌고, 모든 이의 노래는 다 같은 노래이며 바로 나의 노래입니다...” **가사에서 보듯 노래에서는 기쁨만이 아니라 때때로 슬픔까지도 주는 우리네 삶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감사가 넘치는 달입니다. 부모님께도, 스승님께도, 또 자녀, 부부끼리도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고 영혼과 육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노래를 듣다 보면 저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작곡 및 노래: 비올레타 파라

노래: 메르세데스 소사



불러서 모인 거룩한 집 ‘안’

김광현 안드레아 | 서울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한때 학생들에게서 건축사 책에 그렇게도 많은 성당 건물이 실려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강력한 권력으로 견고한 건물을 수없이 지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약간 도발적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사에서 오직 성당만이 내부 공간을, 더구나 초월적인 공간을 인간들에게 계속 완성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라고 합니다. ‘ek(어디에서 나와 어디로)’와 ‘kaleō(부르다)’가 합쳐서 생긴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공적인 집회를 뜻했던 이 말을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 해석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 이리로 오라고 하느님께서 부르셔서 모인 이들의 공동체, 이것이 ‘에클레시아’ 곧 교회입니다.

함께 있다 함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야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됩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도 모여 함께 있을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그것이 성당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부름을 받아 모인 당신의 백성을 저 먼 곳이나 집 밖의 마당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놀랍게도 당신의 집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사람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집 ‘안’에 불러 모은 종교는 오직 그리스도교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리스도교처럼 믿는 이들을 신전 ‘안’까지 불러들이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전에는 내부 공간이랄 것이 없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탑인 지구라트는 담장을 몇 겹이나 두르고 높은 곳에 성소를 두어 신과 백성 사이를 격리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높은 곳에 지어진 신전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 집인 성당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



산토 스테파노 로톤도 성당(468~483년)

가 앉은 것, 심지어는 제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은총이요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가운데에 선 사람을 모두가 둥글게 에워싸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란히 마주 보는 두 가지 형식으로 모입니다. 성당에서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에워싸거나 마주 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평면을 각각 중심형, 장축형이라고 부르는데, 중심형 성당은 동방 비잔틴 교회에서 발전했고 장축형 성당은 중세 서유럽의 교회에서 발전했습니다.

성당은 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당에서는 벽으로 에워싸인 내부만이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당신의 집 ‘안’에 우리를 불러들여 몸소 감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일찍이 이런 내부 공간을 거룩한 분의 빛으로 통합하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가장 오래된 원형 성당인 산토 스테파노 로톤도 성당(Santo Stefano Rotondo, 468~483년)을 보세요. 불러서 모인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거룩한 내부 공간의 진수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스피나 남성합창단원 모집

문의: 010-9842-8818 지휘자 이호중 교수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활동: 주일 오후 4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대상: 20~30대 남녀 가톨릭 신자 / 문의: 010-6814-6010
카톡ID 친구추가: LogosChoir / 네이버 검색: 로고스합창단

미사

오순절평화의미를 5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5월12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살레시오와 꿈 후원회 월례미사

지도: 심재현 신부 / 문의: 02)828-3500
때, 곳: 5월9일(월) 10시30분, 가톨릭회관 2층(205-3호)

파티마성모님 발현미사(팔로티회-천주교사도직회)

때, 곳: 5월13일 12시~16시, 자비의산(홍천군 남면 물구비길 160) / 문의: 010-6212-4450 장화기 신부
파티마성모님 첫번째 발현미사에 참석하셔서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 (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oin.com) 토요상담 가능

상처받은 마음치유와 자아 및 관계 회복	5월17일~6월28일 매주(화) 10시~13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등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jscen.or.kr

융학파에서 보는 꿈과 내적치유	6월7일·6월14일·6월21일 (화) 14시30분~16시30분(3주) / 강사: 김영희(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융학파분석가)
전문 심리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 개인상담-정서불안, 우울, 분노, 의사소통의 어려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성체 선교 클라라 수녀회

과달루페 집 이용 안내: 소모임, 개인 피정, 성체조배-매주(목), 사별 가족 돌봄 / 문의: 010-3135-1417

성분도 은혜의 들

내용: 열린카페, 청년들을 위한 오픈 공간, 대관 이용시간: (월~금) 10시~17시·청년들 대상 (금) 18시~21시
강좌: '청년들을 위한 생명 지킴 안내서' 강의·나눔 첫째·셋째주(금) 모임 / 문의: 02)318-2425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상분 기증 신청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철두산순교성지 내)은 오는 7월 '상분(尙本)'을 주제로 특별전시를 개막합니다 이에 가톨릭교회의 첫영성체, 착복식, 종신서원, 선종, 사제서품등을 기증하는 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02)3142-4504, 4505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기도패 신청

추모와 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합동 위령미사(명절·위령의날), 매월 1회 추모와 축복 미사 봉헌 / 문의: 02)2021-2700 사무실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 부부, 진로, 여성상담, 진로검사, 화상(Zoom) 상담 가능 / 소장: 이찬 신부
문의: 010-9295-5912(www.dstoun.net)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 501호
개인상담	우울 및 대인관계 어려움, ADHD, 심리검사 등
교육	미술심리상담사과정-5월16일~6월27일 매주(월) 7회

직원모집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삼성, 서울성모, 여의도성모, 은평성모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행정직원 모집 / 문의: 02)2258-7972

대상: 세례받은 대졸자 이상, 컴퓨터활용 가능한 자
인원: 계약직 1명 / 서류(자유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5월25일까지 이메일(ahck2016@naver.com) 접수

구파발성당 미화원 모집(계약직) / 문의: 02)389-1501

대상: 천주교 신자로 성실하신 분 / 근무: 주 20시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채용시까지 방문·우편(우 03306, 서울시 은평구 진관2로 29-16) 접수 /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통보)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분야: 선교사 교육 운영 및 사무행정·회계(계약직, 육아휴직 대체) / 근무기간: 6월~2023년 11월(18개월)
대상: 견진을 받은 교우로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가능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5월22일(일)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3

신정3동성당 사무장 모집 / 문의: 02)2060-8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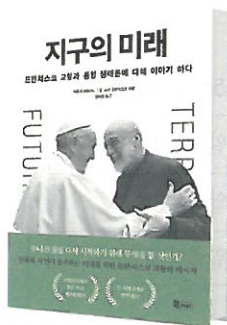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회계 업무·PC 가능한 분(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경험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5월13일(금)까지 방문·우편(우 0805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7길 60-10) 접수

사당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방호원(계약직) 1명 / 문의: 02)587-229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성실한 신자로 신체건강 하신 분(1종 운전면허 자격증 필수) / 채용 희망일: 6월1일
업무: 성당 건물관리, 청소 등 제반사항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5월15일까지 서류 도착·방문·우편(우 07014,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3길9(사당동)) 및 이메일(sdcaatholic@naver.com)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후 면접)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가르멜 수도회	매일	수도원(서울)	010-2140-7414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심수녀회	5월21일(토) 14시~17시	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채현주 수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14일(토) 14시~15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8353-2323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5월14일(토) 14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양주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수시	수도원	010-6312-1986
예수 고난회	5월22일(일) 11시~15시	둔암동	010-6804-4904
예수회	수시	한국관구 성소실	010-6357-0731(vocation.jesuit.kr)
원죄 없으신 마리아 교육 선교 수녀회	수시	본원	010-3944-1375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신하원(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5월15일(일) 14시~17시	가톨릭회관 311호	010-9620-4820
한국외방선교회	6월5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성소국장 신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지구의 미래

카를로 페트리니 지음
안페이지 | 240쪽 | 1만5천원
문의: 031)950-6300

선을 가진 모든 사람의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인류는 삶이 바뀌는 결정적 변화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친근하고 솔직한 분위기에서 이뤄진 세 차례의 만남을 통해 두 사람은 지구와 그 미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통합 생태론을 향한 또 다른 근본적인 움직임을 제시한다.



신간
이나시오와 함께 걷기

아르투로 소사 SJ · 다리오 메노르 지음
이나시오영성연구소 | 278쪽 | 2만원
문의: 02)3276-7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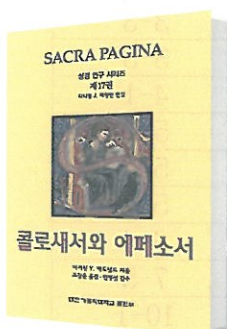
저자는 '이나시오의 해'를 맞아 그에 걸맞은 회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주제들을 통하여 본인이 깊이 성찰한 것들을 나누어 준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은 회심 체험을 통해 복음의 기쁨을 살고 이 시대에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간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복음산책 7)

송봉모 지음
바오로딸 | 368쪽 | 1만7천원
문의: 02)944-0944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강해한 책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요한 복음사가의 신학과 부활 신앙을 구약성경과 역사·문화·문학에 비추어 설명하기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요한복음을 읽시오 할 때 성경 구절 행간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간
성경 연구 시리즈 제17권
콜로새서와 에페소서

마거릿 Y. 맥도널드 지음
대전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592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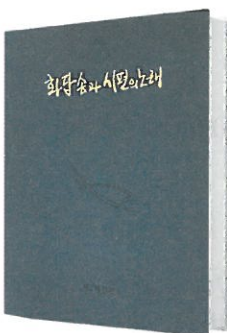
바오로의 서간들 가운데 콜로새서와 에페소서는 다른 서간에 비해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콜로새서와 에페소서가 어떻게 고대의 문학적 가치를 반영하며 공동체 생활의 특별한 국면에서 영향을 받았는지에 좀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손희송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279쪽 | 1만5천원
문의: 02)740-9718

서울대교구 총대리자 교의신학자 손희송 주교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일곱 가지 주요한 물음에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의 몸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미사
『화답송과 시편의 노래』
(제2개정판) 출간 기념
노래로 함께하는 미사

일시: 장소: 5월 14일(토) 오후 2시, 보문동성당
참석신청 및 문의: 010-7623-2941 (문자로 신청
바랍니다. ex:홍길동 참석)

서울대교구 성음악위원회 위원장 박원주 신부가 『화답송과 시편의 노래』 <제2개정판> 발간을 기념하여 '노래로 거행하는 미사'(Missa in cantu)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미사 후에는 간단한 축하식과 북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다.

제222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도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성모의 밤

일시 : 5월 14일(토) 오후 8시 / 대성전
준비물 : 묵주

초(성당마당에서 판매)

※ 꽃을 봉헌하실 개인 또는 단체는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3/23~4/26).

성명	세례명	구역/반
홍은하	안나	1-1
성하국	안토니오	1-1
김예린	리카르다	3-3
김태송	안젤모	3-3
김종건	요한보스코	4-1
유민우	요셉	5-2
김하영	유스티나	5-2
공나형	베로니카	5-3
노푸름	매임테레사	6-4
김의중	스테파노	7-5
박한슬	레지나	10-1
박진열	크리스피노	10-3
장현정	효임골롬바	10-7

◎ 전입교우 환영식

일시 : 5월 8일(주일) 교중미사 후 도서실
※ 매월 둘째 주일 교중미사 후 전입교우 환영식이 있습니다.

◎ 어버이날 카네이션 화분을 판매합니다.

일시 : 5월 7일(토)~8일(주일)
판매가 : 10,000원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8일(주일)
장소 : 경복궁
문의 : 반디교감 (010-5091-1509)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남성을뜨레아

일시 : 5월 15일(주일) 교중미사 후 301호

◎ 성소후원회 미사 : 5월 17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회원분들 회비는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미카엘라 단장 (010-3160-2988)

◎ 청년레지오(셋별 Pr.) 단원 모집

대상 :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청년
회합(기도) : 주일 오후 7시 30분 / 207호
문의 : 단장 (010-9524-8988).

◎ 오늘은 성소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5. 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95	764 (36.5)	701 (33.4)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누 계 32,337,1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정봉화 소피아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4월 25일~5월 1일)

박궁식 이십만원 익 명 삼십만원
김태홍 일십만원 이현수 일십만원
김재균 일십만원 김경호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이형재 일십만원
박수현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부활 제3주일)

교무금 13,620,000원
주일헌금 4,786,000원
노비파스음악중고 후원 2차헌금 2,884,000원

입당	55	봉헌	220, 332	성체	160, 182, 172	파견	129
----	----	----	----------	----	---------------	----	-----



우 리 는 주 님 의 백 성 그 분 목 장 의 양 떼 라 네